

집중진단 민선 9기 위성곤 도정 주요공약 검증 (3) 농산물유통공사·도민투자공사

“설립하겠다”→“임기 내 추진 어렵다”

위 지사 농산물유통·도민투자 등 지방공기업 설립 공약 인수위 “정부 심의·예산 소요 걸림돌”... 공약 철회 수순 공사 설립 ‘장기 과제’로... 대체 전달기구 타당성 검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내건 신규 공기업 설립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지사 취임을 앞두고 가동된 제40대 제주도지사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 공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확정된 ‘민선 9기 도정 100대 정책과제’에 위 지사가 공약한 제주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와 도민투자공사(투자공사) 설립이 빠졌다.

인수위는 대신 미래 성장 추진 전략 내 78번 정책과제에 ‘제주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95번 과제에 ‘투자진흥기구 설립’을 포함시켰다.

78번 과제는 농산물 통합 관리

전담 기구에 대한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95번 과제는 위 지사의 또다른 공약인 1조원 미래성장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기구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면 정부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인수위원들 사이에서도 임기 내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공사 설립은 장기 과제로 넘기고, (이를 대체할) 기구 설립 타당성부터 따져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 유통공사는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위 지사와 경쟁한 문성유 국민의힘 전 제주지사 후보는 토론회에서 “(유통공사가 설립되면)비대화된 관료조직을 양산하고 도민 혈세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고정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위 지사는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통구조를 개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공약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지자체 중 유통공사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와 대구시가 있다. 또 두 유통공사는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을 직접 운영·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제주에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수급관리위원회는 있지만 경매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공영도매시장은 없다. 이 때문에 유통공사가 설립돼도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랐다. 도는 지난 2023년 공영도매시장 도입을 검토했지만 용역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다.

공사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난관이다. 대구시는 2024년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20억원에 현물 2200여억원 등 2600여억원을 출자했다.

인수위로부터 위 지사 공약을 넘겨 받아 실행 방안을 수립할 도 농

정 부서도 정책과제에 나온 농산물 유통 전담 기구가 새로운 공기업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정 부서 관계자는 “현재 꾸려져 있는 농산물 수급관리위원회나 도정 부서 내 별도 조직을 꾸려 전달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앞으로 용역을 거쳐 검증할 계획”이라며 “단 앞으로 검토할 전달 기구 형태에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신규 공사 설립 공약을 철회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공단 탄생을 앞둔 마당에 또다시 새 공공기관을 설립할 경우 관료조직 비대화와 재정 부담 가중 문제로 의회나 도민 사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시설관리공단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새 공사를 설립하면 재정 등에 적잖은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33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접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학교 교사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명)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고등부	최우수상	60만원
	우수상	50만원
중등부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3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정할 수 없음

선정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 (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 (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시상일차 및 장소
▶2026년 8월 10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7월 31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jst1006@hallailbo.co.kr)로 접수
▶한라일보 비즈니스부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송영훈 의장 제13대 도의회 첫 임시회 개회사 “정부 차원 제주노선 항공대책 마련하라”

16일까지 조례안 등 심의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장이 첫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기점 항공노선의 비정상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의장은 9일 열린 제주시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 좌석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두 달 동안 국내선 항공 좌석이 24만석 넘게 줄어들면서 관광객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항공업계는 제주노선 항공 공급력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원 진료와 출장 등으로 출타해야 하는 도민에게 심각한 차질을

준다는 것”이라며 “제주 관광의 걸림돌을 넘어 도민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도의회 역시 도정,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항공좌석난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또 “1500조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제주주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우리만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다. 이제라도 도, 의회, 국회를 포함한 제주 정치권 전체가 초당적으로 뭉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위령성기자 yswi1968@ihalla.com



해바라기의 계절 폭염특보가 내려진 9일 제주시 애월읍 향몽유적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바라기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소외 우려... 2면 / 서귀포시 공직기강 ‘도마’... 5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6 요넥스컵

삼다일보旗

제주도배드민턴대회

남자복식 | 여자복식 | 혼합복식
승급대회

2026.7.11(토) ~ 12(일) 제주북합체육관, 한라체육관

주최 삼다일보

주관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
Jeju Badminton Association, Korea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협찬 요넥스코리아 YONEX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축제